

보도자료

보도 희망일	제한없음(즉시)		
배포일	2020. 10. 30(금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(880-9072, 5054)
담당기관	발전기금	문의	기획팀 변영현 (880-5790)

국내 대표 종자기업 농업회사법인 (주)피피에스 서울대 장학 및 연구협력기금 2억5천만원 약정

- 국내 순수기술개발로 유명한 농업회사법인 (주)피피에스(Pan Pacific Seed)가 서울대학교에 ‘(주)피피에스 장학 및 연구협력기금’ 2억5천만원을 약정했다.
- 서울대는 10월 29일(목) 관악캠퍼스에서 고희선그룹 고준호 회장, (주)피피에스 오승호 대표이사, 오세정 총장을 비롯해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석하 학장, 강병철 연구부처장 등 주요 교내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.
- 오승호 대표이사는 “(주)피피에스는 우리종자 지킴이 정신을 계승하고 한국 농업을 세계에 알리고자 설립했다” 며 기업의 설립방향을 설명하면서 “이러한 기업정신을 나누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대학교가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하고자 한다” 고 기부의 취지를 설명했다.
- 오세정 총장은 “후학 양성과 학교 발전을 위한 회장님과 대표이사님의 성원에 경의를 표하며 약정해 주신 기금은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육종 연구실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를 수행하고 교육을 펼치는 데에 소중히 사용하겠다” 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□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와 (주)피피에스는 이미 개발된 채소작물의 형질 연관 분자마커 정보를 활용한 품종 개발에 공동 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(주)피피에스는 1995년 설립 이후 체계적인 육성계획에 의해 토마토, 참외, 고추, 수박 등 대표 품종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온 대표적인 종자 기업이다. 2020년 취임한 오승호 대표이사는 농우바이오 마케팅 팀장, 아그로윈 대표, (주)피피에스 마케팅 본부장,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농업계에 공헌해 온 인물이다. (주)피피에스는 세계 유수의 종자 기업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품종을 통해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,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.

사진설명: 감사패 전달 후 오세정 총장과 오승호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